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바느질 일곱 친구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서로 존중하는 자세와 협동의 중요성을 배운다.
- **주제** : 협동, 존중

핵심어

협동, 존중, 겸손, 바느질, 자, 가위, 바늘, 실, 인두, 다리미, 골무

한국문화

- **목표** : 옷을 만드는 과정과 한국의 바느질에 대해 알아본다.
- **요소** : 한국의 바느질

한국어

- **목표** : 바느질 순서 및 바느질 도구와 관련된 표현을 배운다.
- **단어** : 싹둑싹둑, 쓱쓱
- **표현** : 가위로 싹둑싹둑 옷을 잘라요,
다리미로 쓱쓱 옷을 펴요.





인사 나누기

배꼽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바느질 일곱 친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전통 옷이 무엇인가요? 그래요. ‘한복’이지요. 옛날 여인들은 바느질해서 한복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바느질 도구가 필요했어요. 여인들과 바느질 도구는 친한 사이였지요. 모두 힘을 합쳐야만 예쁜 옷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느질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뽐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느질 일곱 친구의 이야기를 만나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바느질 일곱 친구’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바느질을 잘하는 부인이 살았어요. 부인 옆에는 항상 바느질 일곱 친구가 있었지요. 길이가 긴 자와 싹둑싹둑 가위, 허리가 가는 바늘과 실, 옷을 쓱쓱 다리는 인두와 다리미, 그리고 손가락에 끼우는 골무 할머니였어요.

하루는 부인이 바느질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바느질 친구들이 모여 앉아 서로 자기 자랑을 시작했어요. 먼저 긴 자가 허리를 펴며 말했지요.

“나는 옷을 만들 때 몸에 딱 맞춰 옷감을詹답니다. 그래야 옷맵시가 나지요. 그러니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자 싹둑싹둑 가위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옷감을 제대로 잘라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말에 바늘이 가는 허리를 꺾듯이 펴며 따끔하게 말했어요.

“옷감을 재고 자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잘 꿰매야 옷이 되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바로 그때, 실도 잘난 체했어요.

“내가 없으면 바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인두와 다리미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흥, 옷을 다리지 않으면 구겨져서 옷맵시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뒤로도 자와 가위, 바늘과 실, 인두와 다리미는 서로 자기가 최고라며 떠들어댔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골무 할머니가 바느질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다들 조용히 해라. 자기 자랑이 끝이 없구나! 우리는 모두 바느질에 꼭 필요한 소중한 친구들이란다.”

그때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에 부인이 잠을 깬어요.

“듣자 하니 모두 자기 잘난 체만 하는구나. 너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 손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괜히 시끄럽게 해서 내 단잠만 깨우고……. 제발 조용히 해!”



이야기 들려주기

화가 난 부인은 바느질 친구들을 저만치 밀어내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부인의 말에 놀란 바느질 친구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자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속상합니다. 부인은 우리 덕분에 옷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가위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지요.

“맞아요. 옷감 자를 때 내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가위가 잘 드니 안 드니 트집만 잡아서 정말 기분이 나빴다고요.”

바늘도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나도 열심히 바느질했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나를 아무렇게나 던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울고 싶었어요.”

“맞아. 우리도 힘들었어.”

옆에 있던 인두와 다리미도 슬퍼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그때 골무 할머니가 점잖게 다가와 말했지요.

“얘들아, 이 할머니도 바느질할 때 부인의 손가락을 다치지 않게 하려다 보니 매번 바늘에 찔려 아프단다. 부인이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건 내 일이니 꼭 참고 견디지.”

상처까지 생겨가며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골무 할머니를 보고 바느질 친구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얘들아, 바느질은 우리의 일이란다.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바느질을 못 해. 그러니 각자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서로 돕고 칭찬하면서 바느질하면 좋겠구나!”

“네, 자기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 서로 도와가며 일할게요.”

골무 할머니와 바느질 친구들은 서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언제 잠에서 깬는지, 어느새 부인도 골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얘들아, 내가 못된 말을 해서 속상했지? 너희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다는 걸 잊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인과 바느질 친구들은 서로 미안해했어요. 그제야 골무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지요.

“옷을 만드는 데에는 누구 한 사람의 재주만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해 준 덕분에 멋진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 모두 최고인 거야.”

“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최고예요!”

그 뒤로 부인과 바느질 친구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다 같이 즐겁게 옷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옷을 만들 때는 바느질 일곱 친구가 모두 필요해요. 그런데, 바느질 친구들 가운데 특히 큰 소리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가위와 다리미예요. 긴자가 옷감을 재면, 가위는 거기에 맞춰 옷감을 ‘싹둑싹둑’ 잘라요. 그리고 옷을 다 만들고 나면 다리미가 ‘쓱쓱’ 다려서 주름을 펴지요. ‘싹둑싹둑’과 ‘쓱쓱’은 소리를 흉내 내는 말입니다.

바느질 일곱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자, 가위, 바늘, 실, 인두, 다리미, 골무예요. 일곱 친구가 협동해야 예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옷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서 옷을 만드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단추를 꿰맬 때나 빨래한 옷을 다릴 때 바느질 일곱 친구가 여전히 필요하지요. 한국의 바느질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바느질 일곱 친구’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인과 바느질 일곱 친구는 옷을 만들 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잘난 체하고 자기 자신을 뽐냈어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나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온 골무 할머니의 겸손한 말을 듣고 곧 잘못을 깨닫고 서로 화해했어요. 그 후 부인과 바느질 일곱 친구는 각자 맡은 일의 중요성과 협동의 소중함을 알고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역할을 서로 존중하고 도와가며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